30괘 - 리위화 - 121121

전체 : 리離의 길에서 이로운 것은 정貞하는 것이다. (그리하면) 형통하리라. 암소를 기르면 길하리라.

1효 : 처음에 양이 오니, 길을 밟아 나가는 상이다. 착오가 있더라도 경건하다면 허물이 없으리라.

2효 : 음이 두 번째에 오니, 황리黄離를 이루어야 비로소 길하리라.

3효 : 양이 세번쨰에 오니, 해가 기울 떄의 광명의 상이다. (하지만)부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러 주지 않으니 나이든 늙은이가 탄식하는 상이어서 흉하리라

4효 : 양이 네 번째에 오니, 돌연 그것이 오고 마는구나! 다 사르는구나, 죽고 버려지고 마는구나!

5효 : 음이 다섯 번째에 오니, 눈물을 흘리며 무너진다. 겨레붙이들이 탄식하니 길하리라.

6효 : 극상의 자리에 양이 오니, 왕이 그로써 출정하여 아름답게 기릴 일이 있으리라. 우두머리는 꺾어버리고 그 무리가 아닌 자들은 얻으면 허물이 없으리라.

전체 : 공동체의 어려움에 처하여 군자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호응이 없어 결국 군자는 쓰러지고, 이에 왕이 출병하여 그 뜻을 이어받아 일을 이룬다는 군자의 희생과 헌신에 관한 괘. 특히 3효는 군자의 희생을 이야기함.